

차 인사 키워드는 여성·이공계·脫 영남

첫 총리는 호남?

대통합·대타평 차원 ... 위상 대폭 강화될 듯

■ 인수위 인선 어떻게 되나

위원장 호남 출신 발탁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직 인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까지 나흘간 외부 일정을 거의 잡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가다듬는 박 당선인은 빠르면 24일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발표하고 성탄절 다음날인 26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인수위 핵심 인선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첫 인선은 박 당선인은 향후 5년 인사 스타일을 짐작해볼 수 있는 시발대여서 인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당선인 주변에선 여성·이공계 인사 대거 발탁 및 탈(脫)영남 인사, 전문가 그룹의 우대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여성 대통령이 변화의 출발이라고 선거 내내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 요직이나 핵심적인 자리에 능력있는 여성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탈(脫)영남 인사의 적극적 발탁은 '국민대통합' 콘셉트와도 직결된다. 현재 인선을 구성 중인 인수위 위원장이나 총리에 대해 호남 출신인

사 하마평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인수위원장 후보로는 당내에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한광우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조부 고 김병로 선생이 전북 순창 출신이다 보니 호남 인맥으로 분류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 위원장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당 밖에서는 선대위원장 영입이 유력했던 진 남(전북 부안) 전 경제부총리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인수위원장은 후보군은 나중 총리 후보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벌써 '호남 총리'설이 돌고 있다. 이들 외에 호남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전북 전주) 한국무역협회장이 있고 이명박 정부 마지막 총리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장성 출신의 김황식 현 총리를 유입시키는 것도 국민대통합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인수위 대변인은 호남 출신의 이상일·박선규 선대위 대변인과 여성인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이 거론된

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원외인데다 박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해 청와대 입성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이지만 인수위 과정에서도 중책을 맡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과 이성현 국민소통본부장, 국방장관을 역임한 김장수 국민행복추진위 국방안보추진단 단장, 박 당선인의 메시지를 총괄해온 조인근 전 비상대책위 부실장 등은 호남 출신으로 인수위원 또는 청와대 입성 가능성이 큰 인사들로 꼽힌다.

이공계 인사의 적극적 기용도 박 당선인이 보여줄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당선인이 지금까지 각종 인사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중시했던 데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공약 입안에서 '현장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사와 더불어 박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속도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 과정을 떠들썩하게 가져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직(presidency)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주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박근혜 당선인의 감사 인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및 차기 정부 구성을 위한 구상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위상은 어떨지, 또 누가 초대 총리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선 총리는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종의 책임총리제다. 구체적으로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초대 총리를 어떤 콘셉트로 가져갈지도 관심거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차관 명에 총재를 초대 총리로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대통령과 안전총리론을 앞세워 고건 전 총리를 초대 총리로 발탁함으로써 반대진영에 안정감을 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문가형이면서 박 당선인의 이종사촌 형부이기도 한 한승수 당시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초대 총리로 기용했다.

박 당선인의 총리 콘셉트는 아직 드러난 게 없지만 대통합·대타평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관점에서 박 당선인 출신지역인 영남보다는 비(非)영남권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호남총리론이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황식 "총리가 인사자료 100% 확보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려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21일 총리공관에서 오찬간담회를 열어 정치권의 회대로 부각되고 있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는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제청하려고 해도 기본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 연임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일은 없다"며 "쉬겠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합 위해 호남 중시할 것

5년 내 적재적소에 호남 출신 인사 배치

새누리 황우여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21일 "국민 대통합의 문제가 호남에 집중되는 문제"라며 "호남을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과 기자간담회 참석해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통합으로 돌아가는 게 새누리당의 약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은 선거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인사 대타평과 지역균형 발전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직자들에게도 '호남에게 새누리가 되라 하지 말고 새누리가 호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당을 철저히 혁신하고 당선인이 탕평인사와 지역균형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호남권 득표율이 예초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과 관련, "짧은 기간 노력했으나 역대 어느 기간보다



새누리당 황우여(가운데) 대표와 유수택(왼쪽) 광주시당위원장, 주영순 전남도당위원장이 지난 21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지를 보내준 데에 감사한다"며 "선거운동의 결과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 인수위에 호남출신인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구

상 중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선인이 인사 탕평에 의지가 있는 만큼 5년동안 적재적소에 지역인사가 배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당선인과 당 내부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국립 5·18 민주묘지 방문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광주를 방문할 것"이라고 박 당선인의 광주 방문을 예고했다.

앞서 황 대표는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전북에서 얻은 13.2%의 득표는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을 갈망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물꼬를 튼 동서화합의 줄기를 이어가면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www.cdu.ac.kr 배움, 그 이상의 약속 - 초당대학교

초당대학교 + 인디애나주립대학교
4년 만에 2개의 학위를 가져라!

초당대학교 중앙도서관 IUP대학 기념도서관

초당대학교에서 가능성을 키우고 IUP대학에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납니다

특성화된 학과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키워주는 초당대학교에서 2년, 세계적인 교육커리큘럼을 자랑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2년 - 4년 만에 2개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초당대학교! 앞선 국제화 시스템을 통해 세계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모집일정 : 2012년 12월 22일(토) ~ 12월 27일(목) (12월 27일(목)은 학교접수 18시, 인터넷접수 21시까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모집인원 192명 (㉠: 17명, ㉡: 83명, ㉢: 92명) ☆교직과정 설치학과, ★실기교사 자격 취득학과 ①신설학과(전공)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일반전형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일반전형			
			㉠	㉡	㉢				㉠	㉡	㉢	
공무원양성계열	경찰행정학과	8	-	4	4	이화·공학계열	건축·토목공학부	20	-	10	10	
	군사학과	6	-	3	3		토목공학전공					
	소방행정학과	8	-	4	4		스마트항공로봇전공 ①	9	-	5	4	
보건계열	간호학과 *	20	8	6	6	정보통신공학전공	8		-	4	4	
	안경광학과	20	-	10	10	식품영양전공						
	의약관리학과	9	-	4	5	외식조리전공						
	치위생학과	5	-	3	2	호텔조리전공						
예·체능계열	부티미용학과*	10	-	5	5	인문·사회계열	경영학과	4	-	2	2	
	검도학과	1	-	-	1		사회복지학과	8	-	4	4	
예·체능계열	사회체육학부 ①	경호무도전공	11	-	5	6	항공운항계열	이동청소년상담학과	10	-	5	5
		사회체육전공 *	5	-	2	3		항공운항학과	17	9	-	8
	실용음악학과	5		-	2	3		항공정비학과	4	-	2	2
							항공운항서비스학과	9	-	5	4	

빛의만평

- 김중두



이게 뭐니까?!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개교)
■ 원서접수 ■
12.21(금)~26(수)
입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